



국내 1호 트램도시 선정을 축하하는 '트램길 먼저 걷기축제'가 시민 2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23일 열렸다. 참가자들이 트램 실증노선 1.9km 구간을 걷기 위해 출발지인 경성대 교문을 빠져 나가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지난 20일 체결된 오륙도선 실증노선 업무협약식.

## 속도 내는 오륙도선 트램 사업

〈경성대·부경대역~이기대 삼거리 1.9km 노면전차〉

남구의 교통속원을 해결할 오륙도선 트램 사업이 속력을 내고 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원장 나희승)과 부산시는 지난 20일 경성대 멀티미디어정보관에서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인 오륙도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트램 오륙도선 실증노선을 구축하고 성능 검증, 안전 운영 등을 위한 전략개발 등에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나승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지난 10여 년 노력해온 무가선 저상트램 연구개발 성과를 남구에서 꽃 피울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사업 구간은 오륙도선(전체노선 5.15km) 중 경성대·부경대역~이기대 아귀 삼거리 1.9km 구간으로 정거장 5곳, 차량기지 1곳이 설치된다. 지난 1월 25일 남구가 경기도 성남시와 수원시를 제치고 정부의 트램(노면전차) 공모사업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사업비는 470억 원으로 국토교통부 연구개발사업비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오륙도선 실증사업 업무협약 마쳐

경성대~부경대 430m '보행친화 대중교통지구' 지정 추진

공모 선정 축하 '트램길 걷기축제'에 시민 2000여명 참가

(국비) 110억 원과 시비 36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 이후 상용 운영될 계획이다.

특히 오륙도선 신설에 맞춰 경성대 입구~부경대 정문 앞 용소로 430m 구간이 보행 전용 대중교통지구(Transit Mall)로 지정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구간이 대중교통지구로 지정되면 트램 외에 다른 차량의 진입이 통제된다. 보행자가 걷기 편해져 자연스레 유동인구 증가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23일 남구의 트램도시 선정을 축하하는 '트램길 먼저 걷기축제' 행사가

열렸다. 경성대를 출발해 트램 차량기지까지 설치될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까지 실증구간 1.9km를 직접 걸어보는 이번 행사에 부산시민 2000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트램도시 선정을 기념해 제과업체 읍소(OPS)에서 19m 트램 모형 대형빵을 제작해 참가자들에게 나눠 주고, 부산장난감박물관(관장 김태유)측이 트램과 트램노선을 축소한 4m 디오라마(배경과 함께 설치한 모형)를 전시해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트램 디오라마는 남구청 2층 민원연관과에 옮겨 구정을 방문한 민원인들에게 전시되고 있다.



오륙도선 실증노선 개요

- 길이: 1.90km
- 구간: 경성대·부경대역 → TBN방송 앞 교차로 → 남부면하시험장 교차로 → LG메트로시티 교차로 → 이기대아귀 삼거리
- 정거장: 5개소
- 차량기지: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



국내 1호 트램도시 선정을 축하하는 '트램길 먼저 걷기축제'가 시민 2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23일 열렸다. 참가자들이 트램 실증노선 1.9km 구간을 걷기 위해 출발지인 경성대 교문을 빠져 나가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지난 20일 체결된 오륙도선 실증노선 업무협약식.

남구, 국내 1호 트램도시된다

## 버스·지하철보다 편한 친환경 미래형 대중교통

# 트램이 뜨는 이유

근래 들어 대중교통시스템으로 트램이 전세계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트램이 보행자 친화적인 교통수단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하철을 두고 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지하철에 내려갔다 올라오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 아무리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있다 해도 버스만큼 승하차가 편리하지는 않다. 트램이 비록 속도는 느리다 지하철을 타기위해 지하철에 내려갔다 올라오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단거리에서 이점이 많다.

또 트램은 같은 노면교통수단인 버스에 비해 친환경적이며 대용량 수송이 가능하다. 버스와 달리 전기로 운행되어 매연이 없고, 소음이 적다. 정시성도 높고 승차감이 뛰어나다. 트램은 지하철에 비해 건설비용과 시간이 적게 드는 것도 장점이다. 복지비용의 증가로 정부예산을 예전처럼 건설사업에 쏟아 붓기도 어려운데다 불황에 지하철 건설은 힘든 일여서 트램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트램은 근린상업 발전에 기여를 한다. 근린상업은 유동인구와 편리한 대중교통을 필요로 한다. 많은 자동차는 교통 혼잡을 불러와 오히려 상권을 침체시킨다. 트램은 사람들이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며, 이로 인한 유동인구는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버스에 비해 미관이 뛰어나고 이미지가 고급스러워 도시의 품격과 가치를 올리는 효과도 있다.

# 첫 트램 실증노선의 의미

이번에 선정된 트램 오륙도선은 '실증노선 공모' 사업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시스템이 올바르게 동작하는지 알아 보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점검과 검증이 필수적이다. 국내에는 아직 트램이 도입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검증받아야 하는데, 오륙도선을 건설해 검증하겠다는 뜻이다.

기존 국내에 존재하는 실증노선으로는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영종도 남서쪽으로 가는 도시형 자기부상열차가 대표적이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아 도시철도 노선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셈이니 서로 시범노선을 유지하고 싶어 하게 되었다. 그래서 시범노선 선정 당시에도 여러 지자체의 공모지원서를 받았고 최종적으로 인천시-인천공항

■ 트램 오륙도선 향후 일정

- 2019. 2: 협상 및 협약체결
- 3~12: 기본계획 및 설계
- 2020. 1: 입찰공고
- 2: 낙찰자 선정
- 2020. 3~2021. 12: 공사 착공 및 시공
- 2022. 1: 상용운영

이 선정되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철도차량제작사인 현대로템에서는 무가선트램 개발 사업을 진행해왔다. 현재 세계 노면전차의 개발 추세는 미관 개선을 위해 차량 지붕 위에 전차선(전지줄)을 얹고 내장 배터리를 충전해 달리는 무가선 방식이다.

이 같은 무가선트램도 기존에 전혀 없던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증노선이 필요했다. 아울러 트램은 다른 철도시스템에 비해서 실증노선이 더욱 필요하다. 그 이유는 도로에서 다른 차량 및 보행자와 함께 달리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도로 교통과 격리된 시운전선에서는 트램과 도로교통과의 상호작용을 제대로 검증하고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보행자들에 대한 영향성도 알아보기 어렵다.

이번에 선정된 오륙도선 시범노선은 부산지하철 2호선 경성대부경대역에서 시작해 이기대 아귀 삼거리까지 이어지는 총 1.9km, 5개역, 차량기지 1개소의 구간이다. 차량기지에는 남부하수처리장 공원에 지어진다. 원래 이 구간은 부산시가 도시철도 오륙도선을 구상하고 있던 곳이며, 오륙도선 전 구간(5.15km)은 오륙도 SK뷰아파트까지 이어진다. 용호동 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부산시와 남구에서 오래 전부터 지하철 2호선의 지선 개념을 구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계속해서 사업 우선 순위가 밀렸고 2017년 6월 고시된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는 아예 포함되지도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트램 실증노선 선정 공고가 나왔고, 부산시가 오륙도선 공모신청서를 제출해 최종 선정되기에 이르렀다. 남구가 선정된 데에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화두 외에도 주민들이 트램 유치기원 결의대회를 열 정도로 적극적인 노력으로 나선 것이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우진(교통통합과, 미래철도DB 운영자, 한국도시철도협회 자문위원)

〈트램 특징기사 7면 계속〉



지난 20일 남구청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남구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

## 남구장학회 제2회 장학금 전달

고등학생 20명·대학생 10명에 총 4000만원... 작년보다 액수 배 늘어

재단법인 부산광역시 남구장학회(이사장 성재영)에는 남구 내 거주 고등학생 20명과 대학생 10명 등 30명에게 총 4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고등학생 100만원, 대학생에게 200만원씩 지급했다. 장학회 출범 첫해였던 지난해 1650만원에 비해 두 배 이상 증액됐다.

주인 추천 등으로 선발된 장학생들은 3년 이상 남구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들로 성적우수 장학금(학업성적 80%, 생활수준 20%)과 생활 형편을 고려

한 희망 장학금(학업성적 50%, 생활수준 50%)으로 나눠 선발됐다. 특히 올해는 전국대회에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한 학생들에게 주는 재능장학생 2명도 선정했다.

남구장학회는 지난 20일 남구청 5층 대회의실에서 이들 장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남구장학회 성재영 이사장은 "남구장학회가 갈수록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장학생들은 더욱 학업에 충실해 훗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돕는 재목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남구장학회는 장학회 사업에 참여할 뜻 있는 지역인사나 후원자를 지역과 상관없이 연중 모집하고 있다.

남구청과 지역인사들이 힘을 모아 지역 인재 육성을 목표로 지난해 4월 출범한 남구장학회는 남구청 출연금 20억 원의 민간 기탁금 20억 원을 목표로 총 40억 원의 장학기금을 모아 운영할 계획이다.

기탁금 문의: (재)남구장학회 사무국(남구청로 4607-4121)

## 이웃돕기 성금 IS동서 1억 기탁

지난 5년간 5억원 남구에 기부



용호동 주상복합아파트 'The W'의 시공사인 IS동서(회장 권혁준)가 남구 주민을 위해 지갑을 크게 열었다. 지난 1월 31일 남구청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으로 남구에 1억원을 기탁했다.

남구는 IS동서로부터 받은 1억원을 관내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비 및 난방비로 7000만 원, 고등학생 교복비로 2000만원을 지원했다. 성금을 전달한 허석현 부사장은 "새해를 맞이하는 청소년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희망찬 출발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IS동서는 남구에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 총 5억원 상당의 성금을 기탁했다. 이밖에 회사는 지난해 4월 아파트 준공과 맞춰 용호동 유람선터미널 근린공원 부지에 128억원을 들여 분포문화체육센터와 분포도서관을 건립해 남구청에 기부채납했다. 4607-4865

## 구청 광장서 3·1운동 재현행사

3월 1일 오후 1시30분

남구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오는 3월 1일 오후 1시 30분 남구청 구민광장에서 3·1 독립만세운동 재현 행사를 개최한다.

재현행사에는 독립유공자 유족들과 사전

신청한 고등학생 60명이 참여해 독립선언서 낭독과 태극기 만세삼창 행사에 이어 축원무, 민요, 오카리나, 통기타 등 문화공연이 펼쳐진다.

재현행사가 마치고 고등학생들을 인솔해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관람과 추모탑 참배 등의 평화투어도 가질 계획이다.

지 면 안 내

남구 SNS 서포터즈 출범 3면

남구의 100년 맞길 내로냉면 4면

평생학습프로그램 5면

이기대 얼마나 아십니까 6면

안중근 유묵 남구에 있다 8면

남구에 잠든 전쟁영웅 9면

재미로 읽은 단편소설 11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 남구신문 기사 등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주행실험을 하고 있는 무가선 저상트램이 일반 차량과 함께 도로위를 달리고 있다. 전철과 달리 전력공급선이 없다.